

마음의 소리

남의 일이 아니야!

자기자신의 일로 여기며 올바른 지식과정보를 바탕으로
코로나를 극복하자!



목차

- P1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약칭: 진켄교/인권협)란?
- P2 가맹단체 소개
- P3 금년도 사업 소개
- P4 특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인권)
- P5.6 제42회 나의 인권 메시지 특선작품 소개
- P7 인권 교육 DVD·비디오 소프트 대여 안내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에
서는 인권 교육의 일환으로서 인
권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마음의 소리”를 발행하여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권협 홈페이지



<https://www.jinkenkyo.jp>



편집 · 발행
(2022년 3월 발행)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사카이시 사카이구 미나미카와라마쥬 3-1 사카이시 인권추진과내
TEL 072-221-9280 FAX 072-228-8070

사카ishi 인권교육추진협의회(약칭: 진켄교/인권협)란?

인권협은 부라쿠(部落/부락) 차별을 비롯한 일체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1979년 7월에 발족한 시민조직입니다. 각종 시민단체, 기업, 종교법인 등과 같은 많은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권 교육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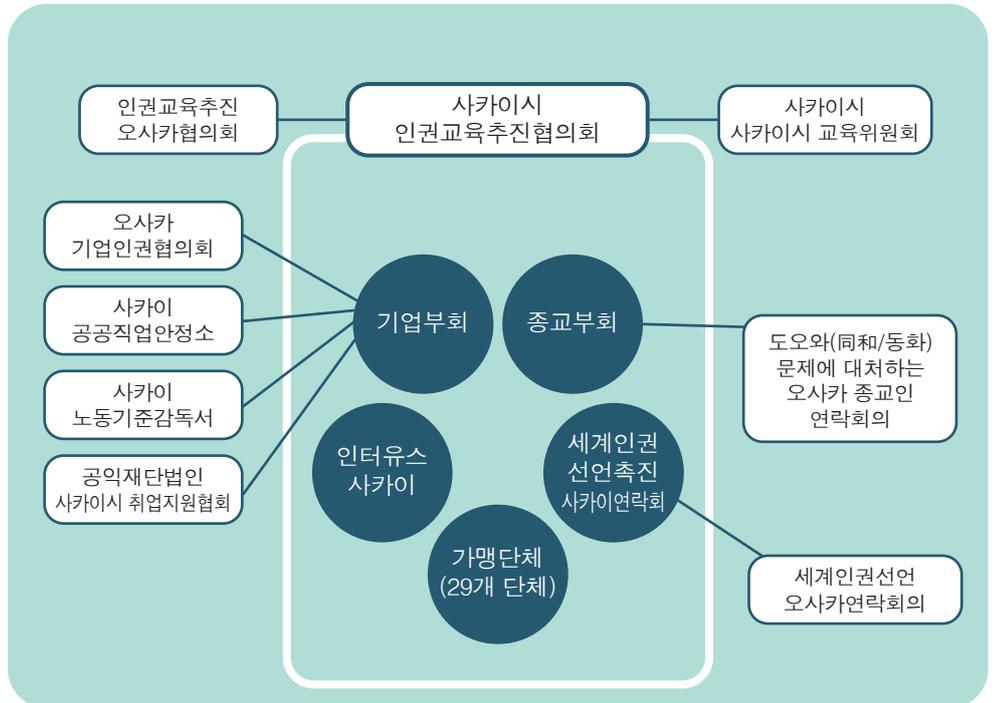
회장 카나마루 나오히로



사카ishi 인권협의 심볼마크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인권을 지키며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직도 · 임원

- 회 장** 카나마루 나오히로
(사카ishi 인권교육추진협의회 기업부회)
- 부회장** 쿠보 테루오
(사카ishi 자치연합협의회)
- 부회장** 아마구찌 노리코
(사카ishi 여성단체협의회)
- 부회장** 오오타 카요
(사카ishi 학부모 교사 연합(PTA)협의회)
- 부회장** 시라모토 타다시
(사카ishi 보육회)
- 부회장** 키도 카즈토모
(사카ishi 시립 교원장회)
- 부회장** 타케다 신이찌
(부라쿠(部落/부락) 해방동맹 오사카부연합회 사카이지부)
- 부회장** 요시무라 세이지
(사카ishi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종교부회)
- 회 계** 코야마 토시미
(사카ishi 갱생보호여성회)
- 회 계** 모리우찌 케이코
(사카ishi 인권옹호위원회 사카ishi지구위원회)



가맹단체 인권협은 29개 단체가 가맹하고 있습니다.

- 사카ishi 교육회
- 사카ishi 재일외국인 교육연구회
- 사카ishi 여성단체협의회
- 사카ishi 청소년 지도원 연락협의회
- 사카ishi 학부모 교사 연합(PTA)협의회
-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사카ishi 민간 교육보육시설 연맹
- 사카ishi 시립 교원장회
- 사카ishi 지구 행정상담위원회
- 일반재단법인 오사카부 전수학교 각종학교연합회
- 주식회사 UR 커뮤니티 서일본지사 센보쿠 주거센터
- 사카ishi 갱생보호여성회
- 사카ishi 자치연합협의회
- 사카ishi 시립 유치원연합회
- 사카ishi 인권교육연구회
- 사카ishi 보육회
- 사카ishi 민생위원 아동위원연합회
- 일반재단법인 사카ishi 노인클럽연합회
- 사카ishi 보호사회 연락협의회
- 자유 도오와(同和/동화)회 오사카부 본부 사카이지부
- 부라쿠(部落/부락) 해방동맹 오사카부연합회 사카이지부
- 사카ishi 어린이회 육성협의회
- 사카ishi 사회교육위원회의
-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사카ishi 장애인단체연합회
- 사카ishi 농업협동조합
- 일반재단법인 사카ishi 모자·과부복지회
- 사카ishi 상공회의소
- 사카ishi 인권옹호위원회 사카ishi지구위원회
- 사회복지법인 사카ishi 사회복지협의회
- 오사카 부립 학교장협회 제8지구

사카이시 갱생보호여성회

갱생보호여성회란 범죄와 비행이 없는 밝은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지역의 범죄 예방 활동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비행 청소년의 갱생지원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전국에 약 1,300 지구회가 있으며 약 17만 명의 회원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카이시 갱생보호여성회(이하 사카이 갱여)는 1965년 4월에 결성, 보호사와 함께 '사회를 밝게 하는 운동'을 비롯해 갱생보호단체로서 갱생보호시설이나 소년원, 교도소 등을 방문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사람의 갱생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활동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예방, 자녀 양육 지원 활동 등 폭넓게 지역 사회에 착실히 뿌리를 내린 실천 활동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발족한 지 55년이라는 귀중한 기념 해를 맞이했습니다. 현재는 42개 학구 700여명의 회원이 사카이 갱여의 기초이념인 인간애, 지역사랑 정신을 갖고 지역의 관계기관, 단체 여러분과 폭넓은 연대를 도모하며 자애(慈愛)의 정신이 넘치는 활동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55주년이라는 귀중한 해에는 '자애(慈愛)로 이어온 55년'을 주제로 기념지 '자애(慈愛)'를 발행, 또 각 학구에 입간판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입간판에 사용한 '사카이의 아이 지역의 사랑에 웃는 얼굴이 빛나다'라는 표어 문구 하나 하나는 회원의 여러 활동에 보내는 뜨거운 마음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바탕으로, 활동을 즐기자를 모토로 밝은 사회에 큰 꿈을 그리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7개 지구로 나뉘어 있는 지역활동과 8개 부회를 구성한 부회활동입니다. 부회활동에서는 학구의 대표 이사가 1개 부회에 소속하고 각각의 부에 걸맞는 내용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활동은 각 학구의 회원 전체가 빠짐없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8개 부회는 연수부, 지역과의 연대협동활동추진부, 갱생보호시설 연락부, 사랑의 모금활동추진부, 자녀양육지원활동추진부, 사회공헌활동추진부, 다도 체험 활동추진부, 홍보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회에서는 갱생보호 자원봉사로서 바람직한 활동 내용과 성과를 교류하여 서로가 큰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각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명령하거나 지시를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원봉사 정신으로 지역을 각별히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따스한 인간애를 기초로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55년의 역사를 거둬온 사카이 갱여의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대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에서 기고할 기회를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 확실한 자각 아래, 활동 하나하나를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사카이시가 빛나는 날을 꿈꾸며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확실히 밟아, 더욱 힘차게 갱생보호의 자원봉사로서 회원 일동 확실한 걸음을 나아가겠습니다.

사카이 인권옹호위원회 사카이시 지구위원회

인권옹호위원회는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의 상담 파트너.

인권옹호위원회는 법무장관이 위촉한 민간인들입니다. 이 제도는 일본국 헌법이 시행된 1년 후인 1948년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지역 속에서 인권존중사상을 널리 알리고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며 인권을 옹호해 가는 일이 바람직하다는 사상에서 창설된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약 14,000명의 위원이 전국의 각 시정촌에, 사카이시에서는 35명의 위원이 배치되어 마츠바라시, 타카이시시, 오사카사야마시 위원과 함께 사카이 지구협의회로 적극적으로 활동(상담, 구제, 계몽)하고 있습니다.

인권옹호위원회는 법무국의 인권상담소와 더불어 시청 등의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에 특설인권상담소를 주시로 개설하여 주민 여러분의 인권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라는 신고 등이 있는 경우는 법무국 직원과 협력해 정보 수집, 인권 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에 임하고 당사자의 이해와 주장을 조정하며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합니다.

더불어 지역주민에게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계몽활동으로 초등학생과 유치원 원아 등을 대상으로 배려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인권교실' 개최 및 '인권의 꽃 활동' 실시, SOS 미니 레터를 통한 초, 중학생의 인권 상담, 중학생의 인권 작문 모집과 표창, 기업 등의 인권강습회 강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이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전문 책자 등을 정기적으로 발행 및 배포, 방송국의 협조를 얻어 인권옹호 활동(중학생 인권작문 표창식 등)을 소개하는 등 각 지역에서 아이디어가 넘치는 계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곳의 인권옹호위원회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나 고민이 있다면 상담은 무료이니 오사카 법무국 사카이지 부로 부담없이 문의 또는 상담해 주십시오.

전체 연수회(2021년 8월 24일~9월 24일 인터넷으로 녹화영상 송신)

전체 연수회에서는 야스다 나츠키 씨(사진 저널리스트)의 강연 ‘공생(共生)이란 무엇인가~난민의 목소리 가족의 역사로부터 생각해 보는 다양성~’을 주제로 한 강연 녹화영상을 송신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도항.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동안 야스다 씨 자신이 느꼈던 다양성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고 ‘공생(共生)’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권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2021년 12월 24일~2022년 1월 23일 인터넷으로 녹화영상 송신)

12월 4일부터 10일까지의 인권 주간에 따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인권 존중의 연결 고리를 더욱 확대해 갈 기회로 ‘제42회 인권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제1부의 ‘나의 인권 메시지’ 표창식은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점에서 중지되었습니다만 금년도는 참가자를 한정하는 등 감염 방지대책을 강구하면서 12월 4일에 사카이시 종합복지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나의 인권 메시지’ 작품 모집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인권 존중이나 인권을 지키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많은 시민 여러분의 인권 의식을 향상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응모 수 2,550개 중에서 특선작품을 선출해 표창했습니다. 또한 4명의 대표분이 작품(작품은 P.5-6 “제42회 나의 인권 메시지” 특선작품 소개”에 게재하고 있습니다)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세대가 다양한 인권 주제로 쓴 메시지에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임하는 것이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부 마타노 아키코 씨(전 유치원 교사, 보육사)의 ‘살아있는 지금 빛나는 생명~휠체어에서 보이는 세상은 꽤 멋지다~’라는 주제로 한 강연을 제1부와 함께 ‘제42회 인권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으로 녹화 영상을 송신했습니다. 자신이 장애인인 되어 경험한 휠체어에서 보이는 세상에 대해, 또 더욱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장애인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마음에까지 상처를 주지 말기를



‘남의 일이 아니야’ ~코로나 차별 실태~

의료종사자와 그 가족들,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차별 사례가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자나 밀접 접촉자를 과도하게 회피하거나 비난하는 차별과 편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정 증상만으로 감염자로 단정짓거나 감염자가 다니고 있는 대학의 학생이나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을 드러내는 등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분들에 대한 인터넷상에서의 부적절한 비방 댓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감염된 적이 없는 분이라도 부당한 취급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모두가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나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상상해 봅시다!

감염된 사람과 그 가족, 외국인 등을 비난하지 말자

감염된 사람과 그 가족의 이름이나 주소를 특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차별이나 편견, 따돌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편견에 휘둘리지 말고 배려 있는 행동을 합니다.

백신 접종은 본인의 판단, 차별이나 짓궂은 짓을 하지 맙시다

백신 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르며 건강 상태나 장단점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접종을 강제하거나 접종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배려 있는 행동을!

누구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일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감염이 두려운 사람들, 가족이 걱정되는 사람들...

누구나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과 성원을 보내자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와 경의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와 코로나를 극복해 갑시다.

나의 인권 메시지

◆ 특선작품 소개 ◆

특선작품집에는 응모된 2,550점의 작품 중 본인 허락을 얻은 특선작품을 게재하였습니다.

특선작품집 홈페이지

<https://www.jinkenkyo.jp/past-message/>



장애인의 인권 (초등학교 5학년)

인권이란 사람의 권리(건강하게 살고 많이 배우며 자유롭게 활동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권리)이며,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 일상의 배려심에 의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니까'라거나 '아이니까'라고 그 사람을 바보 취급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나 아이나 모두 같은 사람이므로 이건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했을 때 '아이니까', '여자니까' 라고 해서 바보 취급하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저에게는 장애가 있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서는 것도, 걸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저도 같이 도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동생도 좋아해 주고 엄마 아빠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밖을 걷다 보

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동생을 빤히 쳐다보거나 어린아이가 '재는 큰 애가 유모차를 타고 다니네' '걸으면 될 텐데'라고 하는데 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동생을 빤히 쳐다보는지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당연한 일이라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면 저와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될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들어 생각하는 것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데 어려울 때는 왜 말을 걸지 않는지, 말을 거는 일이 용기 있는 일이고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동생의 휠체어를 밀고 전철을 탈 때 항상 단차(段差)를 힘들어하십니다. 그럴 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고맙습니다'고 몇 번이나 말합니다. 그리고 저도 엄마도 '좋은 사람이구나' '다행이다'라고 웃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살기 편하게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당연해지도록 말을 걸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중학교 2학년)

제가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 남녀 차별'에 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간호부라는 여자밖에 할 수 없었던 일도 있지만 지금은 간호사라는 명칭이 되었고 남자도 할 수 있게 된 직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장에서의 남녀 차별입니다. 상사가 '여자니까, 이런 일을 맡길 수 없구나'하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다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옛날에는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는 다릅니다. 하지만 '여성은 아기를 낳는 몸이기 때문에'나 '요리는 여자가 하는 것' 등은 차별이고 요리를 좋아하는 남성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단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인권'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유치원생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귀여운 물건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큰 리본에 핑크색 스커트, 유행하는 물건을 모으거나 귀여운 인형을 모아 '자기 자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져 '저'를 바꿨어요. 핑크색 치마나 화려

한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을 그만두고 바지와 어두운 색깔 옷만 입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에 대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치마를 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도 중학생이 되자 자연스럽게 자기를 '보쿠(남자아이가 자기를 칭할 때 쓰는 표현)'라고 부르게 되었고, 학교 친구들이 '왜 보쿠야?'라고 묻곤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대해줘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그 일에 대해 말하는 일이 없어졌고 옷도 '자기가 사서 입으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 때보다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2 때의 5월에 머리를 싹둑 잘라 자신이 좋아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 긴 머리가 좋은데'라고 했지만 '잘 어울려'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어 지금의 자신이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도 나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한마음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등학교 1학년)

최근에 괴롭힘을 당해 자살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걸 읽고 나도 예전에 괴롭힘을 당했던 과거를 떠올렸다.

친구나 친한 친구였던 애들의 괴롭힘이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끝났지만 점점 수위가 높아져 왕따로 바뀌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도망 다녔고, 투명인간 취급에 외모를 비하하다가 마지막에는 “너는 내 친구가 아니야”라고. 몇 번이나 혼자서 울었는지, 몇 번이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런 날들이 이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말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담하거나 하면 일러바쳤다고 해서 괴롭힘이 더 심해질 줄 알았다. 주위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나만 견디면 된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부끄러웠다. 그래서 상의하지 않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학교에서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엄마한테 숨기지 말고 사실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울며 모두 털어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고 울면서 말했다.

후일 괴롭힘에 대해 서클 고문 선생님과 상담했다. 그러자 다음날 괴롭힌 가해자들이 불러 와서 이야기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울면서 그 사실을 부인했다. 고문 선생님은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나는 절망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사람에게 대해 불신감이 생겨 학교에 가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매일 자살을 생각하는 나를 지탱해주고 여기까지 회복시켜 준 부모님께는 지금도 감사드린다.

괴롭힘은 인권침해이자 범죄다. 가해자에게 왜 벌을 주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다.

지금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괴롭힘이 우리 세상에서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만 해도 앞으로의 세상에 대해 용기와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단지 차이를 인식하는 것(성인)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르다는 점을 ‘그저 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일은 있더라도 서로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부주의한 언행에서 원치 않는 오해나 알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나 자신이 제일 한국인임을 숨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녔던 민족교육에서 배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집에서 당연하게 먹던 전통음식, 쓰던 말이 제일 한국인의 정체성을 키워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일본 사회에 나가서도 항상 일본식 이름이 아닌 본명을 사용했고 많은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도 스스로 제일 한국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사회인이 되면서 충격을 받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 전체, 혹은 제 개인을 가리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인’이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사내에서 열린 회의 중에 해외 거점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사로부터 ‘...우리 일본인이 현지에 가서 제대로 지도합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회사의 어떤 연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이야기를 나누게 된 분께서 ‘일본에서 태어나 쪽 여기서 자라서

이렇게 유창하게 일본어를 잘하니 이제 일본인과 다를 바 없군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부정하거나 다른 무언가 특별한 것을 의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존재를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어 머릿속에서는 자문자답을 되풀이했습니다

(혹시 일본인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동안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애초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은 ○○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저에게는 ‘본명을 자칭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제일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의 한 증거이자 금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것은 주위에 잘 감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외모와 말투, 행동 등이 그들이 품은 저에 대한 인상으로 강하게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체성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안이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르다는 것’ 그냥 그것만 강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차이가 보이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카이시 인권추진과에서는 인권 교육 DVD · 비디오소프트를 무료로 빌려 드립니다.

대여 작품 일람은

사카이시 인권 교육 DVD · 비디오소프트 대여

검색



문의처 **TEL072-228-7420 FAX072-228-8070**

DVD 코로나
사태에서의 인권

약 26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당사자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코로나 차별~
'코로나 차별'의 특징과 차별이나 편견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드라마
형식의 인권 교육 교재.

DVD 정보 윤리

약 21분

모두의 정보 윤리 III
애니메이션으로 배우기! SNS에 잠재하는 리스크
SNS에 잠재하는 위험성을 배울 수 있는 영상 교재. 드
라마에서 문제점을 깨닫고 알기 쉬운 정리 해설로 안심하
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지식과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
는 정보 윤리 교육 교재.
※기타 모두의 정보 윤리 VI(애니메이션으로 배우기! 정보
발신의 영향과 그 책임) 등이 있습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SDGs(지속가능한 발전목표)란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15년 동안 빈곤과 불평등·양극화, 기후변화, 자원의 고갈, 자연파괴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가 사는 세계를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세계 공통의 17가지 골(목표)을 말합니다.

인권협에서는 SDGs 패널과 스티커를 통해 SDGs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카이시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협력하면서 폭넓은 인권 교육·계몽 활동을 추진하는 등 SDGs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카이시는 2018년 6월에 일본 정부로부터 'SDGs 미래 도시'로 선정돼 SDGs를 실현하기 위해 사카이시SDGs 미래도시계획을 책정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카이시에서는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실현을 위해 '세이프 시티 사카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활동 중 하나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피해자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상담 및 지원체제의 내실을 다지며 성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없애고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해 계몽 등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폭력 근절을 목표로 하여 대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사카이시 성폭력 상담 검색